

필리핀과 무역도자기

The Philippines and Trade Ceramics

김인규*
In Gyu KIM

I. 필리핀 출토 무역도자기

도자기의 무역은 850년 경 중국 절강성(浙江省) 일대에서 제작된 월주요청자(越州窯青磁)가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서아시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지역까지 반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무역품으로 중국도자기는 현재의 반도체와 같이 저비용 부가가치 상품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마법의 향아리와 같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중국취미 내지 중국문화의 동경 즉 시누아즈리(중국취미, Chinoiserie)라는 풍조를 세상에 만들어내었다.

필리핀 유적에서 출토된 무역도자기는 중국, 한국, 일본도자기 및 베트남, 타이도자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도자기는 800년 전후에 등장하여 1800년도까지 거의 1000여년 동안 무역도자기로서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게 된다. 한국도자기는 전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12세기 중엽의 고려청자와 명대 해금(海禁) 정책으로 중국의 무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kimingyuko@yaho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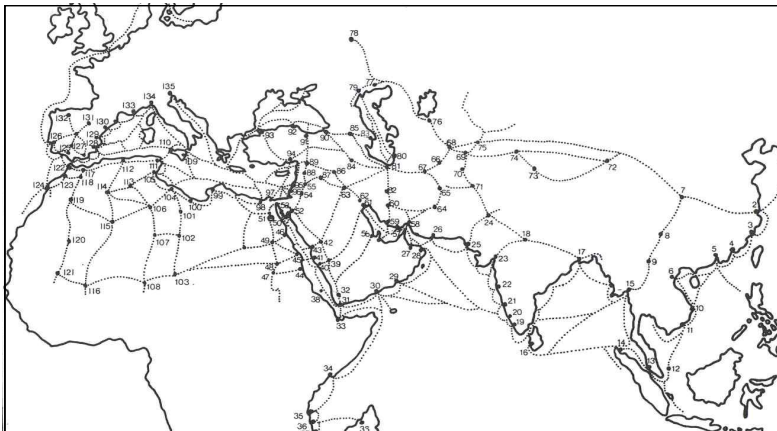
역도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15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 등이 필리핀 지역으로 반입된다. 일본도자기는 필리핀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유적에서 17세기 후반의 것이 주로 발견된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타이 도자기 역시 15세기, 16세기 중국도자기의 대용품으로 필리핀에서 반입되어 중계매매된다.

II. 무역품으로 도자기의 유통경로

아시아 및 유럽에 반입된 중국도자기는 문순기후나 계절풍을 이용한 범선에 의하여 운반된 것으로 생각된다. 호라니(Hourani)가 바스라, 시라푸에서 광둥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밝혔듯이 중국도자기는 광둥을 출발하여 중동지역까지 약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어 서아시아 지역에 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도자기가 서아시아지역으로 반입된 무역루트에 대해서는 10세기경, 서아시아에서 출판된 슴레이만(Sullayman)과 아부 자이드(Abu Zayd)에 의해 쓰여진 Akhbar al-Sin wal-Hind 와 부즈르크 이븐 샤희리아르가 저술한 Kitab Ajaib al-Hind 라는 책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책을 통해 서아시아사람들이 이용했던 인도양의 루트는 여러 개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이중 도자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 광둥(廣東)에 이르는 경로는 <표 1>과 같다.

<표 1> 중국도자기 반입루트



III. 필리핀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

필리핀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는 당대(唐代), 송대(宋代), 원대(元代), 명대(明代), 청대(清代)로 구분할 수 있다. 당대도자기는 장사요청자(長沙窯靑磁), 월주요청자, 형요백자(邢窯白磁) 등이 있다. 장사요청자는 대부분이 접시로 형태와 문양이 인도네시아 벨리통(Belitung, 826년경 침몰)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여 늦어도 826년경에 필리핀 지역에 반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접시의 중앙에는 초화문이 커다랗게 장식되었고 세 귀통이에는 산화철로 세 귀통이를 직선으로 색칠하여 소박하면서 과감한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1, 2)



<그림 1> 필리핀 출토 장사요청자



<그림 2> 인도네시아 벨리통 출토 장사요청자(826년경)

이러한 장사동관요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란 등 서아시아지역까지 수출되어 무역도자기로 당대도자기의 존재 및 무역루트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송대(宋代)의 도자기는 필리핀 민다나오 브투안(Mindanao Butuan)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의 중국도자기는 북송과 남송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송시대의 도자기로 월주요청자는 10세기 후반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릇의 외부에는 연판문이 새겨져 있다. 같은 시기의 백자로는 하북성(河北省)에서 생산된 정요백자(定窯白磁)가 소량 출토되고 있다. 월주요청자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연판문이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다. 남송시대의 도자기는 복건성 동안요(同安窯)계

청자와 천주요(泉州窯)에서 제작된 황색과 녹색의 유약을 사용한 도기(陶器)가 있다.

원대도자기는 절강성 용천요(龍泉窯)청자와 강서성 경덕진요(景德鎮窯)에서 제작된 청백자와 청화백자가 있다. 용천요청자는 대형의 반(盤)과 향로(香爐)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의 중앙에는 물고기 두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헤엄치는 모습이 시문되어있다. 그리고 향로에는 원의 도자기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팔괘(八卦)의 문양이 시문되어있다.(그림3) 이 문양은 기본적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혼란한 현세를 우주의 원리와 질서를 도형화한 팔괘를 통해 굳굳이 헤쳐 나가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헤아릴 수 있다.



<그림 3> 필리핀 출토 용천요청자 향로



<그림 4> 필리핀 산타아나 유적 출토 청화백자

필리핀 출토의 원대도자기는 대부분이 14세기 전반의 것이고 기형과 문양 등이 한국新安(新安) 앞 바다 침몰선에서 나온 중국도자기의 매우 흡사하여 14세기 전반의 중국의 청자 및 경덕진의 청백자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이 시기의 유물이 동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에서 널리 보여 당시의 무역루트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리핀 산타아나(Santa Ana)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원대 청화백자(青花白磁)는 대부분이 소형으로 호, 주전자 등이 있고 문양은 국화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4) 필리핀에서 출토된 소형 위주의 기형에 간략한 문양이 시문된 청화백자는 서아시아에서 발굴된 대형의 뾰족한 문양을 가진 청화백자와 달리 약간 이른 시기인 14세기 전반에 제

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명대도자기는 바탄가스 칼라타간(Batangas Calatagan) 유적과 필리핀 인근 바다에 침몰된 판다난(Pandanán) 및 네라쇼올(Lena Shoal), 산타 크르즈(Saint Cruz), 샌디에고(San Diego) 선박 등에서 출토되었다.

샌디에고 침몰선에서 인양된 도자기는 명말청초 전환기 및 경덕진 요가 폐쇄되는 1620년 이전의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 기형으로 호, 병, 대접, 접시 등이 있고 반의 저부에는 약간 굽은 모래를 받쳐 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제작지의 추적에 매우 유용하다.(그림 5, 6)

필리핀 유적에서 나온 청대도자기는 스페인 유적인 인트라무로스에서 폭넓게 출토되고 17세기 후반의 청화백자와 색회자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토된 청대의 도자기는 경덕진, 복건, 광둥지역 등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그림 5> 샌디에고 침몰선 출토 청화백자병 (1600년경)



<그림 6> 샌디에고 침몰선 출토 반 (1600년경)

IV. 필리핀 출토된 한국도자기 및 일본도자기

4.1 한국도자기

필리핀에서 출토된 한국도자기는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로 나뉜다. 고려청자는 약 10점이 팡가시란 볼리나오(Pangasinan Bolinao)에서 출

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그중 2점이 현재 일본 토야마(富山)의 사또(佐藤)공예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한 점은 12세기 전반의 것으로 문양이 없고 규석을 받쳐 구웠다.(그림 7) 다른 한 점은 12세기 후반의 것으로 짝어서 문양을 만들었다.

필리핀에서 출토된 조선시대의 도자기로는 15세기에 제작된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있다. 동종의 도자가 하카타(博多) 유적 등 일본 서부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일본 서부에 전해진 분청사기의 일부가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 지역으로 반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7> 필리핀 출토 고려청자



<그림 8> 필리핀 인트라무로스 출토 일본 청화백자

4.2 일본도자기

필리핀에서 출토된 일본도자기는 마닐라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유적에서 일정량이 확인되고 17세기 중엽에 보이기 시작하여 17세기 후반에는 양이 늘어난다. 출토된 일본도자기는 대부분이 청화백자로 아리타(有田)와 그 인근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출토된 일본도자기 중에는 그 생산지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나가사키 하사미(長崎 波佐見)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존재가 있다.¹⁾ 이 청화백자는 접시의 중앙에는 바닥에 닿는 면이 넓은 이른바 해무리굽의 백자나 청화백자를 구운 흔적인 둥근 원형이 보인다.(그림 8)

1) 일본 하사미 도자기의 원조는 임진왜란때 강제 연행되었던 이우경(李祐慶)이다. 그는 1598년 하사미 히가시소노기군에서 한국식 등요를 만들어 도자기를 생산하였고 이후 대량의 무역도자기를 생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해무리굽을 가진 백자는 한국에서 17세기 후반의 백자에 주로 보여 필리핀에서 출토된 일본 하사미에서 제작된 청화백자는 조선 백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임진왜란 전후에 납치된 조선도공 또는 조선도공이 직, 간접으로 개요(開窯)에 관여한 조선식 가마에서 제작된 도자기로 여겨진다.

즉 하사미를 비롯한 일본 서부에서 제작된 도자기의 상당수는 조선도공 내지 조선식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이 포함되어있고 그러한 것들의 일부가 필리핀에 수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필리핀에서 출토된 일본 서부에서 제작된 도자기는 조선도공 및 조선식 가마에서 제작 것으로 무역도자기로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조선백자의 기술을 직접을 승계한 일본 서부 지역의 도자기가 무역도자기로서 동남아시아 및 유럽지역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조선백자 및 그기술이 유럽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세계 및 동양 도자기의 역사에서 조선백자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V. 필리핀 출토 동남아시아 도자기

필리핀에서 출토된 동남아시아의 도자기는 베트남, 타이, 미얀마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리핀 유적에서 출토된 베트남도자기는 일정량이 명의 해금정책이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15-16세기에 반입된 것으로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필리핀 출토의 대표적인 베트남 도자기는 판다란 침몰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형의 작은 호를 비롯하여 대형의 반, 주전자 등 다양하다. (그림 9) 타이의 도자기는 청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두 개의 귀를 가진 호나 반등이 있고 판다난 침몰선 및 필리핀 국립박물관 소장의 베이어(H. Otley Beyer) 컬렉션에도 보인다. (그림 10) 미얀마 도자기는 마르타반호(Martaban Jar)와 청자로 구분할 수 있다. 마르타반호는 민다나오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청자는 산타 크르즈(Saint Cruz) 침몰선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림 9> 판다난 (Pandanan) 침물선 출토 베트남청화백자



<그림 10> 베이어컬렉션 소장 타이청자

VI. 필리핀 출토의 무역도자기의 특징과 의미

필리핀의 유적과 침물선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및 베트남, 타이, 미얀마의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와 유럽 도자가가 시대가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이 중 중국도자기는 당대부터 청대까지 1000여년간 필리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필리핀의 무역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필리핀에서 출토된 한국도자기는 12세기와 15세기의 것이 일부 확인되어 고려와 조선전기의 문화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 도자기는 17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동남아시아 도자기는 명의 해금정책의 기조가 확고했던 15-16세기에 필리핀 지역에 반입된다. 특히 필리핀의 유적에서 확인 가능한 베트남 청화백자의 양이 상당량이어서 필리핀 지역에 반입된 베트남 청화백자를 중계무역 등의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필리핀에서는 9, 10세기 반입된 서아시아의 녹유도기 및 19세기 이후 반입량이 증가하는 유럽도자가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필리핀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 및 문화교류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